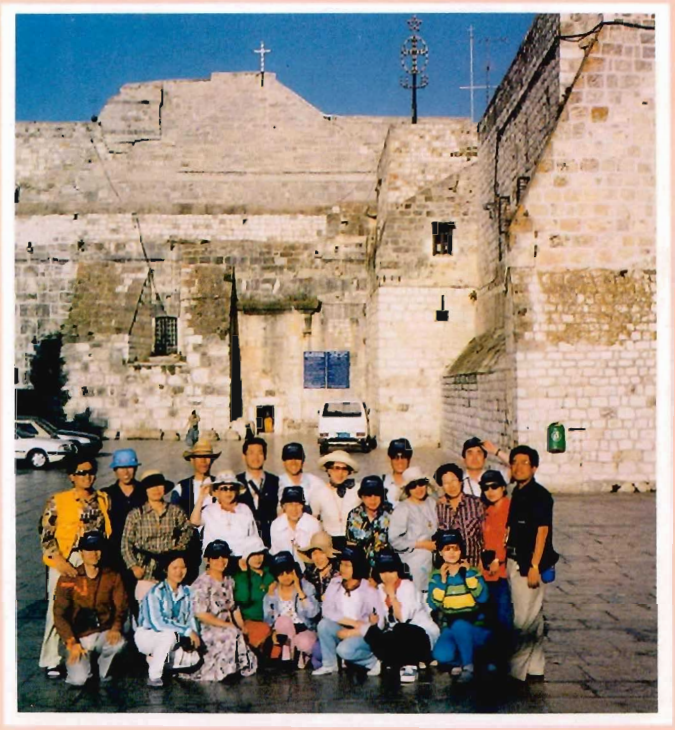
가정예배 안내서

8

1995

충현의 만나

스가랴, 말라기, 사도행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8

1995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스가랴, 말라기, 사도행전

표지 사진 : 제1차 교역자 성지연수(에베소에서)

기 도 제 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풍년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5년 8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서 론

스가랴서의 필자인 '스가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다. 그는 본래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로서 학개와 함께 포로시대 후에 활동한 사람이다. 수신자는 당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실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따라서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르고 있는데, 그 특징은 주로 환상적인 표현이 많다는 점이다.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메시야 왕국에 대한 여덟 가지의 환상(1:7~6:8)을 볼 수 있다. 9~14장에는 메시야와 그의 왕국에 대해 예언하며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9:10)고 선포한다. 스가랴서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모든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14:9-20)이라는 말씀으로 예언을 끝내고 있다.

말라기서의 필자인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다. 말라기서의 특징은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예배 의식의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한 점이다. 그 내용은 제1부(1:1~3:15)에서는 이스라엘의 특권과 타락에 대한 책망이 있고 제2부(3:16~4:6)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다. 보통 '말라기' 하면 '십일조'를 생각하지만 그 내용은 3장 8-10절에 나오고, 말라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1장 2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책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1 (화) 회개에 대한 권고

찬송 / 184장　본문 / 슥 1:1-6

『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1: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들의 열조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범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법을 좇아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열조가 범한 구체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좇아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행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진리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일으키게 한 이스라엘 열조의 죄악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조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들도 그들의 열조가 지은 죄를 되풀이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어떠한 행위를 본받아 행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앞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한 것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 성경의 기록이 증거하여 줍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기도 /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심 (수) 2

찬송 / 204장 본문 / 슥 1:7-21

『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1:17)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땅에 두루 다닌 자들은 여호와께 "온 땅이 평온하여 정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방세계를 다스리시는 자도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교만하여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안위하시고, 다시 택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한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같이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면서 다시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어떠한 잘못이 있든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김창인 목사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목) 척량줄의 환상

찬송 / 337장 본문 / 스가랴 2:1-13

『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 』(2:11)

본문은 스가랴가 본 여덟 가지 환상 가운데 세번째 환상으로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여주기 위하여 척량줄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 척량줄은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시련과 성전 재건의 지연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바벨론의 멸망을 피해 도망할 것을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없이는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만이 영생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6,7). 또한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8,9). 이것은 여호와의 날(11)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와 구원의 날이지만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택한 자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롬 5:12).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무서운 심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승리의 소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 기도 /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양 사역에 칠십배의 결실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면류관 (금) 4

찬송 / 355장 본문 / 슥 3:1-10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3:5)

오늘날 미인선발대회는 최고의 미인에게 왕관을 수여하는 대관식입니다. 머리 위에 씌우는 관은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두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한 싸움을 위하여 흘리는 수고과 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일에 힘쓴 성도들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왕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계 20:6).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 기도 / 주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향하여 날마다 살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충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새신자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찬송 / 370장 본문 / 슥 4:1-14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4:10)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순간의 조그만 실수로 일을 그르칠 수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여야 합니까? 첫째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모습의 하나는 교회의 일 중에서 좀 규모가 있고 많은 사람의 관심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소중한 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때 예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복을 주십니다(마 25:21). 둘째로,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여야 합니다(슥 4:6). 셋째로, 작은 일에도 합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의 일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거나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충성하는 마음을 주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바의 죄를 조심하라 (주일) 6

찬송 / 379장 본문 / 슥 5:1-11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5:5)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에바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에바란 곡식을 측량하는 기구로서 당시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타파해야 할 에바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경제적인 에바의 죄입니다. 노동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노동한 댓가 이상 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치적인 에바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공의롭게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롬 1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괴롭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문화적인 에바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고 주신 문화명령은 사라지고 부패한 향락문화로 인하여 급속히 사회가 타락한 죄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에바의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하고 바른 문화를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경제, 정치, 문화적인 에바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월) 생명의 순

찬송 / 468장 본문 / 슥 6:1-15

『……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6:12)

겨우내 메말랐던 나무에 어린 가지나 움이 돋아 나옵니다. 그 뿌리의 영양은 순을 통하여 열매로 운반되고 그 열매는 아름답게 무르익어 여행자를 즐겁게 합니다. 이런 생명현상은 우리에게 늘 삶의 경이로운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다윗의 가계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지만 밑둥만 남아 있는 썩은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요셉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성읍으로 가서 약혼녀인 마리아와 등록을 할 당시 다윗의 가계는 확실히 기울대로 기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순'으로 오신 주 예수님은 마침내 우람한 생명나무로 뻗으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열매로 전달하신 통로가 되셨습니다.

본문은 '순'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당시 힘없는 망명객들에게 전해졌을 때 얼마나 큰 희망과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성전터는 잔해(殘骸)로 뒤덮였으며 그런 쓰레기더미와 씨름한다는 것은 거의 절망적인 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들을 크게 고무시키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 아닌, 그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그들과 함께 성전을 세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어떤 어려움이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몸되신 성전을 세우기 위해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흙손을 들고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성전의 영광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 기도 / 생명의 순되신 그리스도께서 매일의 삶에서 희망과 용기와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하여주소서. 교회의 직원들이 기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강석 같은 마음 (화) 8

찬송 / 197장 본문 / 슥 7:1-14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7:12)

어떤 방문객이 한 시골마을을 갔습니다. 첫날 이른 아침에 그는 약 15분 동안 계속되는 경적 소리에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가 시골마을에 머무는 동안 매일 아침 그의 수면을 방해하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자 자기들은 전혀 방해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곧 익숙해져서 아무런 성가심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로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며칠 후 그 경적소리가 들려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일찍 깨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훈으로, 인간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싸여 그런 환경에 익숙해졌을 때 말씀이 주는 예민함과 감동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심령은 한 번에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악이 또 다른 악을 불러옴으로써 점차로 그리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강석과 같은 인간의 마음이란 녹일 수도 없고 환원시킬 수도 없이 굳어져버린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은 있으나 행함은 없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때로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참된 선행은 없습니다. 이런 영적 질병은 시급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하게 굳어져버린 금강석 같은 마음도 은총의 용광로는 녹여서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도 / 금강석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교회의 일꾼들이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수) 튼튼한 성

찬송 / 384장 본문 / 슥 8:1-13

『 ……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 』(8:3)

러-불 전쟁이 한창 치열했을 당시 나폴레옹의 군대가 매우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올 때 불란서인들은 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할머니는 "오 하나님, 우리의 방벽이 되사 러시아군의 공격에서 보호하소서"라고 어린 손자와 더불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서 잠자리에 든 어느날 밤, 러시아군이 벌떼처럼 밀려들어 그 집 부근을 도보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날부터 그 인근에 폭설이 내려 그 오두막집 정원에 높이 쌓여서 러시아군은 그곳에 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쳐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 주위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튼튼한 성을 쌓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완전한 성읍을 예비하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을 섬기는 백성만이 삽니다. 그 성 바깥에는 사나운 맹수가 어슬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방벽 안에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과 같이 기쁨으로 충만한 평강의 성읍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이 거리마다 뛰어노는 어린아이들로 가득찬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어른들도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는다면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 곧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하늘나라는 오직 이같이 겸손하고 순진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보호와 은택을 끝없이 누리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 기도 / 온갖 위험이 즐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저희의 출입을 늘 지켜주소서. 찬양대원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활이 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스런 회복 (목) 10

찬송 / 502장 본문 / 슥 8:14-23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8:19)

꿈만 같은 이야기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말하거나, 또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일 때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70년이란 긴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국에 돌아가기를 희구하는 강렬한 향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에 이 약속은 실감나지 않는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분명한 역사로 이미 되어 왔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 하리니"(13)라고 하신 것처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한 회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방에 산재한 이스라엘의 무리를 본국으로 재소환하실 것과 또 그들과 영적인 부자(父子)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고 시인하게 될 때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절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분명코 개인의 영적 윤택함도 되찾게 되며, 잃어버린 건강이나, 가정의 평강, 산업의 형통과 주위 환경의 모든 기업도 충만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 기도 /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늘 희망과 꿈을 품게 하소서.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 (금) 세상의 영광에 대한 경고

찬송 / 448장 본문 / 슥 9:1-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9:8)

매일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곤 하는 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교훈해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 피조물의 영광은 다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태양계를 비취는 해도 뜨고 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혹성의 나라나 민족이나 그 통치자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 영광의 지는 때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는 두로 사람들의 지혜가 유명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니게의 성읍들은 오래도록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오래도록 용맹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곳들은 결국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주전 3세기 후반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혹하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 세상의 사악한 무리를 향해 주는 경고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악하고 불의한 무리들이 도리어 힘을 얻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아무리 험악한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도 결코 우거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절대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블레셋 도시는 파괴하였어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비롯하여 도시들은 결코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대적들은 떨며 굴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는 싸움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름과 은총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약속되는 축복의 승리입니다.

▶ 기도 /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주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토) 12

찬송 / 539장 본문 / 슥 9:9-17

『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 』(9:9)

본문은 본토에 돌아와서 영적 부흥과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메시야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며 보상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야가 오시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이 다 멸망당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야가 곧 오시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스가랴는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즉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미 2천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각 교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주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찬송 / 511장 본문 / 슥 10:1-12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10:6)

본문은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보내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그 백성들을 다 불러모으시려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생활이 곧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허탄한 우상들을 섬긴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거짓 신을 섬김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아가 이제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셨습니다. 다시는 허탄한 것을 섬긴다든지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순종 잘하게 하여주소서. 남녀전도회가 성령충만하여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백성 (월) 14

찬송 / 352장 본문 / 슥 11:1-17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 』(11:7)

본문은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등 임시적인 영적 부흥을 맞이했지만, 곧 타락하고 다시 부패해지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메시야(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 목자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은 그때에는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곧 거짓 목자를 의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나 그 이후 신앙생활 중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마땅히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구원의 기쁨과 기도 응답의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무서운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경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부와 에바다부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 (화) 그날이 올 때까지

찬송 / 532장 본문 / 슥 12:1-14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12:10)

본문은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될 메시야 왕국의 완성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주변 나라가 침략해오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므로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려는 악한 궤계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보존하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평화와 고통이 결정되었습니다. 잘 섬기면 평화가 오고, 우상을 숭배하면 전쟁과 기근을 통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경성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못할 경우에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만 이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일제하 36년의 비극적인 식민지 생활이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동안 우리 민족과 교회는 많은 각성과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최후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날,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 기도 / 최후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남북이 피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건한 성도의 고난 (수) 16

찬송 / 344장 본문 / 슥 13:1-9

『내가 그 삼분지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 』(13:9)

본문은 종말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邪鬼)가 멸절되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새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불신세력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소수의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신풍조가 만연한 시대의 특징은 거짓 예언과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현시대에도 옷을 갈아입은 것뿐이지 여전히 진리가 아닌 거짓 이론과 풍조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다는 것은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와중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곧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성도에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급의 조건입니다. 고난은 연단을, 연단은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오늘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외에는 없다." 이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고난 중에 연단받으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궤계를 상대하여 늘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연단받아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주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이리안자야 의료선교인 지원과 현지인 목회자 양성이 칠십배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 (목) 여호와의 날

찬송 / 164장 본문 / 슥 14:1-11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14:4)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행 1:11)이라고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열국에 포위되어 성읍이 함락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 때에 주님께서 친히 감람산 위에 서서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주실 것입니다(1-4). 이때에 감람산이 갈라지고 계곡이 생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라진 계곡을 통하여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4,5). 이때에는 천체가 빛들을 잃게 될 것이며, 낮도 밤도 아닌 오히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인데, 이 구원과 축복의 생수는 모든 사람에게 활력과 생명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6-8). 바로 이때에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9-11).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을 최후의 위기 속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재림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 편에 서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금) 18

찬송 / 164장 본문 / 슥 14:12-21

『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 』(14:20)

주님의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쳤던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으로 인하여 서있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게 되고, 혀가 그 입 속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은 그들의 육축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며, 대적들은 서로 손을 들어 침으로써 스스로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12-17).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16). 이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열국 중 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들과 저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솥이 제단 앞의 성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이 이곳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장차 모든 저주와 속된 것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종합선교관 건립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 (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찬송 / 404장 본문 / 말 1:1-5

『……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1:2,3)

말라기란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란 뜻으로 이 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통하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1).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 60여년이 지나는 동안,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섞이게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도덕적, 영적으로 부패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매우 괴롭게 하였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잘 준수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개나 스가랴처럼) 약속과 격려의 말보다는, 경고와 책망에 가까운 선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첫번째 선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2-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형인 에서는 버리고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며 에서가 아무리 자신을 위하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것이지만, 야곱은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말고, 그 크신 사랑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추진중인 성지연구소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사장들에 대한 선포 (주일) 20

찬송 / 21장 본문 / 말 1:6-14

『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 』(1:6)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6). 그들은 하나님의 상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으며(7,12),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라고 비웃으면서 눈먼 희생과 병든 제물,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들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컷과 좋은 것들은 숨겨놓고, 흠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사기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8,1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사장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9),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들 중에서 아무나 성전 문을 닫아 하나님께 헛되게 제사드리지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10).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이와같이 하나님을 멸시하였으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11).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소홀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 이름에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 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중에서 주의 크신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수리남 사회의 안정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 (월) 제사장의 죄에 대한 책망

찬송 / 23장 본문 / 말 2:1-9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2:8)

제사장들의 죄를 일일히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제사장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의 얼굴에 제물의 똥을 발라서, 그 제물과 함께 제거해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1-3).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시켜서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기 레위에게 세워주셨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4).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언약을 레위에게 주셨던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5). 이전에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으며,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고, 그들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였었습니다(6).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정도에서 떠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떠났고, 많은 사람에게 공의로 대하기보다 편벽되게 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지식을 지키며, 공의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는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예배를 수종드는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은 데로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홍콩을 기지로 한 대륙 선교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화) 22

찬송 / 210장 본문 / 말 2:10-17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유리하는 것과 …… 』(2:16)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 거룩한 성결의 삶을 외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첫째 잘못은 '궤사를 행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 말은 간사하고 교묘한 술책이나 거짓된 언행으로 배반하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잘못은 '가증한 일을 행함' 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며 그 제사의 식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잘못은 '이방신의 딸들과의 결혼' 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통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출 34:14-16; 신 7:3).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의 규례를 잃어버리고 심각한 타락의 길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결단해야 할 부분은 이방인과 교통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의 성결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 기도 /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한 모습을 이루게 하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을 통해 모슬렘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 (수) 깨끗한 사람이 드리는 의로운 제물

찬송 / 429장 본문 / 말 3:1-12

『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 』(3:3)

사람들은 제각기 가장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도 진정한 깨끗함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이미 더러운 죄악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모두를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연단입니다. 마치 순수한 금이나 은을 얻게 되는 과정처럼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깨끗한 창조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의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은 진정한 감사와 거룩한 구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물이 이렇게 의롭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연단주심을 감사하며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의료선교사역을 통해 일본인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끼시는 사람 (목) 24

찬송 / 405장 본문 / 말 3:13-1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3:17)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지쳐서 힘들고 괴로워 보일 때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교만하게 지내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를 보아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악인들이 계속해서 창성함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하심이 멈추어지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친아들처럼 귀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자랑과 악인의 형통함에 흔들리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끼시고 위로하시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끼실 만한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한인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 (금) 주의 날에 대한 약속

찬송 / 539장 본문 / 말 4:1-6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4:2)

본문은 종말에 이루어질 주님의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는 극렬한 풀무불이 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풀무불은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로서 죄악의 모습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합니까? 첫째는 '교만한 자'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악을 행하는 자' 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죄악의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신실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첫째로 하늘 높이 떠오른 의로운 해를 통하여 치료의 광선을 공급받아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의인을 핍박하던 악인들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에게 생활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로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토) 26

찬송 / 256장 본문 / 행 1:1-11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1:8)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증인' 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증거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순교자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사역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서 감당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사역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있어야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의 권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헤아리시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은 결코 제공해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 끝까지 복음 증거에 앞장서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전개하는 사역을 통해 맛사이족 등 현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 (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

찬송 / 86장 본문 / 행 1:12-26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1:14)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더 계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천사들의 재림 증거를 받은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평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 즉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본래 예수님께 대한 애정은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고 따르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런데 늘 본문에 보면 이런 동생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나중에 보면 야고보는 베드로와 동등한 위치에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고전 15:7)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후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야로 알고 고백하였으며 그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알지 않게 됩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 기도 /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섬기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월) 28

찬송 / 172장 본문 / 행 2:1-13

『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 』(2:1,4)

오순절(직역하면 '오십일째 날')은 유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참조, 레 23:15,16). 이런 이유에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이 날은 '맥추절' (출 23:16), '칠칠절' (출 34:22; 민 28:26; 신 16:9,10), 혹은 '맥추의 소실절' (출 34:22; 민 28:26)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교 사회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세 가지 연중 대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방과 서방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이 순례자들이었습니다(9-11).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열흘 동안 함께 모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필요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성령도 알지 못하고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베드로처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도 / 성령의 필요를 깨닫고 기도하게 하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 (화) 분명히 아십시오!

찬송 / 340장 본문 / 행 2:14-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2:36)

우리는 전도하려고 할 때 마음에 부담을 가집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과연 받아들일까? 내가 무안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가도 남자보다는 여자들, 좀 순하게 생긴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저 -" 하고 말을 붙이거나, 불쑥 전도지를 내어밀곤 합니다. 준비할 때에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도 막상 나가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는 작은 여종 아이 앞에서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수만의 군중이 모인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방언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지 못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불과 달반 전에 처형당한 예수의 추종자들임이 알려지면 어떤 해를 당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는 메시야이시며 왕이시다,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바로 성경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 정말 구약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뿐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성경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용기를 얻은 사실을 기억하며 성경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 기도 / 성경에 대한 확신을 주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면에 안정과 발전을 하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선물 (수) 30

찬송 / 337장 본문 / 행 2:37-47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2:38)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던 새로운 시각에서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참으로 메시야일진대 그분을 죽이는 데 앞장 섰던 대제사장들은 메시야를 몰라본 두려운 실수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제사장들에게만 있지 않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로마 권력에 동조하여 메시야를 죽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에 싸인 무리들의 외침에 베드로는 숨통이 트이는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옛언약을 따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예루살렘 거민과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 성령을 직접 맛보라고 청중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기쁨과 열기로 가득찼고 신자들의 새로운 방식의 생활이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회개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 (목) 예수님이 고치신다

찬송 / 493장　본문 / 행 3:1-2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3:16)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만났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에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다리를 고쳐줌으로 그 사람이 구걸해야 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없애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쏠린 무리들의 관심을 스스로 누리지 않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앉은뱅이를 치료하신 분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님 그 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앉은뱅이를 고치신 그 능력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멸망을 은혜로 돌이켜놓으시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의 행위에서 돌이키고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병들고 무기력한 이 세대가 우리를 보고 달려와서 놀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 기도 /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전하게 하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주님, 9월에도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 다 같 이

성경봉독 ·····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 다 같 이

주 기 도 ·····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1995년 8월호 · 발행인/신성종 · 편집인/우기전
발행처/충현교회 출판부 · 등록번호/제9-110호(1977. 10.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552-8200 [비매품]